

# 음악·댄스·연극... 도심 활력소 된 거리공연

**'2017 음빛고을거리 버스킹' 종료**

4월22일부터 28차례 공연  
예술가 170팀 400여명 참여  
지역뮤지션들 무대 제공하고  
시민 6만여명에 즐거움 선사  
6개 음악팀 9일 마지막 행사



지난 9일 열린 '2017 음빛고을거리 버스킹' 행사에 참여한 '양리머스'.

지난 9일 오후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어린이문화원 나눔광장. 재즈 'Fly me to the moon', 팝 'Isn't she lovely', 가요 '고래사냥', '아름다운 강산', '남은 먼 곳에', '누구없소', '동지', '내 나이가 어때서' 등 다양한 장르의 노래들이 울려 퍼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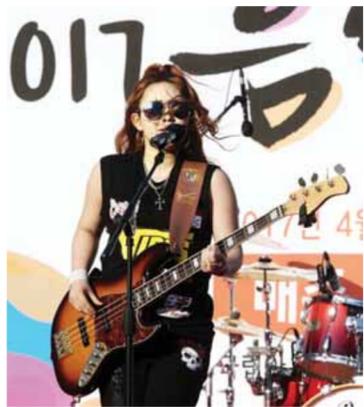
영하로 떨어진 추운 날씨에도 가족, 친구들과 거리로 쏟아져 나온 시민들은 잠시 발걸음을 멈추고 공연을 즐기며 행복한 추억을 만들었다.

올 한해 지역민들에게 다채로운 공연을 선사했던 '2017 음빛고을거리 버스킹 행사(이하 음빛고을거리)' 28번째 공연에는 더블클립 등 6개 단체가 참여했다.

광주시가 주최하고 (사)아시아문화가 주관해 지난 4월22일부터 12월9일까지 매주 토요일마다 열렸던 음빛고을거리 지난 9일 공연을 마지막으로 막을 내렸다.

음빛고을거리는 지난 봄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어린이문화원 나눔광장에서 시작해 지난 10월14일부터는 '추억의 가을버스킹'이라는 주제로 광주시청 앞 잔디광장에서 진행했다. 또 비엔날레전시관 광장으로 장소를 옮겨 다양한 공연을 선보였다.

음빛고을거리는 지역에서 활동하는 다양한 장르의 예술인들에게도 의미있는 무대였다. 음악, 댄스, 연극 등 예술가 총 170개 팀 400여 명이 재즈, 팝, 트로트, 최신가요, 힙합 등 다양한 장르를 통해 시민



'2017 음빛고을거리 버스킹'의 첫 공연에 참여한 '여우벌 밴드'.

들과 소통했다.

개막공연에서는 지역 출신으로 '슈퍼스타K 6'에서 인기를 끈 합평 출신 '여우벌밴드'와 'KBS 열린음악회' 등에 출연한 여성 3인조 그룹 미켈, 어쿠스틱 핑커스타일 기타리스트 정윤준씨가 관객들과 첫 만남을 가졌다.

또 '감성을 판다'라는 컨셉으로 다양한 곡들을 재구성해 선보이는 어쿠스틱 밴드 'Feeling Seller', 잔잔하고 서정적인 곡부터 상쾌하고 기분 좋은 에너지를 주는 곡까지 다양한 곡들을 준비한 그룹 '딩가딩가형', 재즈보컬리스트 장소영 등이 출연했다.

그밖에 카페와 길거리에서 버스킹 공연을 하며 활동하는 2인조 공연팀 '더블클립', 4번의 정기콘서트를 열기도 한 '양리머스'의 무대도 관객들의 호응을 이끌어냈다.

남성 중창 및 독창으로 클래식 기반의 크로스오버 음악을 선보이는 'E.N VOICE', 울드팝, 트로트, 최신가요 등 다양한 장르를 통해 대중과 소통하는 가수 주권기, 이음과 달리 오래도록 감동을 이어갈 음악을 선보이는 3인조 인디밴드 '오래모랫밴드'도 많은 이들에게 박수를 받았다.

힙합, R&B 퍼포먼스도 펼쳐졌다. 광주시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힙합그룹 'On the paper'가 신나는 힙합무대를 선보였으며, 어쿠스틱 포크 트리오, 뉴런크루, IpTime, 전자 바이올리니스트 강병진도 등장해 눈길을 끌었다.

이번 행사에는 회당 약 2000여명, 총 6만여 명의 관객이 참여해 공연을 즐겼다. 참여 뮤지션들은 자신들의 CD를 선물로 증정하는 등 관객들과 함께 호흡하며 공연을 이어가기도 했다.

전은재기자 ej6621@kwangju.co.kr

## 피아노 문현옥·바이올린 이해정·첼로 나윤주 '트리오 콘서트'



문현옥 이해정 나윤주

13일 유·스퀘어 금호아트홀

피아노 트리오 콘서트가 오는 13일 오후 7시 30분 유·스퀘어문화관 금호아트홀에서 열린다. 전남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인 피아니스트 문현옥, 바이올리니스트 이해정, 그리고 첼리스트 나윤주의 연주로 실내악의 진수를 선보일 예정이다.

이번 공연에서는 드보르작의 실내악 중 현악사중주 '아메리카', 피아노 트리오 '돛기' 그리고 브람스 실내악 '피아노 트리오 제1번'이 연주된다.

피아니스트 문현옥은 연세대학교를 졸업하고 미국 맨해튼 음대에서 석사 및 전문연주자과정을 졸업했으며 템플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바이올리니스트 이해정은 서울예고와 연세대학교를 졸업하고 독일 쾰른 국립음대와 미국 맨해튼 음대 석사 및 전문연주자 과정을 졸업했다. 첼리스트 나윤주는 예원, 서울예고 및 서울대학교를 졸업했으며 뉴욕주립대에서 연주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전석 2만원, 학생 50% 할인. 문의 010-6331-6834. 전은재기자 ej6621@kwangju.co.kr

## 민중미술 1세대 이준석 '참 맑은 꽃' 전

29일까지  
무각사  
로터스갤러리



▶'푸르른 날'

모란, 매화, 소국... 갤러리에 꽃이 만발했다. 민중미술 1세대로 꼽히는 이준석 작가가 이번에는 소박한 꽃과 정물화로 관객을 만나고 있다. 오는 29일까지 무각사 로터스 갤러리에서 열리는 '참 맑은 꽃'전을 통해서다.

미술대학 재학시절 5·18 광주항쟁을 만난 그는 30여년 동안 목판화 등을 통해 세상과 호흡하며 치열한 작품 활동을 해왔다. 작가는 지난해 광주시립미술관에서 열린 '중견작가 초대전'을 통해 30여년 작품 세계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이 작가는 "기존에 작업했던 5월 작업들의 의미를 이번에는 자연에서 찾아보고 싶었다"며 "희망을 이야기하고 서로가 마음을 내어줄 수 있는 소재로 '들꽃'에 주목하게 됐다"고 말했다. 꽃 작업에 대해 "스스로 낯설고 어색하기도 했다"고 말하지만 그의 작품들은 관객들에게는 편안함을 준다. 갤러리를 떠나는 이들의 표정이 환해져 있는 걸 보면 알 수 있다.

들꽃들은 짙은 배경 덕에 선명하게 다가온다. 또 유화 물감에 기름의 비율을 높인 까닭에 훨씬 투명하고 맑아 보인다. 수채화보다는 강렬하고, 유화보다는 부드러운 느낌의 작품들이다. 명암을 중시한 정물 작품은 깊이가 있으며 나무를 흔드는 바람의 존재가 손에 잡힐 것만 같은 풍경 작품 '바람, 그리고 놀다'도 인상적이다.

이 작가는 "꽃을 그리려고 마음의 꽃도 같이 피어나는 것은 아닌 듯하다"며 "삶이 버거져도 묵묵히 견디며 살아가는 모든 이에게 마음의 붉은 꽃 함성이 드리고 싶다"고 작가의 말에 적었다.

광주미술인공동체 회장을 역임하고 제1회 통일미술제집행위원장을 맡았던 이 작가는 10여차례 개인전을 열었으며 '광주비엔날레 20주년 특별전', '1980년대 광주민중미술' 전 등 그룹전에 참여했다. 광주미술상을 수상했다.

문의 062-383-0070.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 김영란 작가 초대전 '사계의 연가' 30일까지 재북미술관



'회상'

김영란 작가 초대전이 오는 30일까지 재북미술관(광주시 광산구 수안재활요양병원 1층)에서 열린다.

'사계의 연가'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에서 작가는 계절의 변화를 다양한 나무로 표현했다.

그녀가 화폭에 자주 옮기는 건 나무와 숲이다. 우리의 삶 역시 나무와 숲처럼 "어디가 훌쩍이 서서 호흡하며 세상을 바라보는 거"라는 생각에서다. 나무와 어우러진 집들의 모습은 안온함을 준다.

하늘로 쭉쭉 뻗은 나무들은 원색의 화려함이

돋보인다. 밝고 환한 색감들이 어우러져 풍성한 숲을 만들어낸다. 나무는 사계절의 풍광을 감추고 있기도 하다.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봄의 환희를, 쓸쓸한 가을의 추억을 풍부한 상상력을 가미해 표현해 냈다.

지금까지 5차례 개인전을 열었으며 구상공모전, 광주·북경 전업작가전 등 다양한 그룹전과 단체전에 참여했다. 광주전업작가회, 예플드 목포회원으로 활동중이다. 문의 062-950-9500.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각국 보청기 전문 A/S센터 상표등록 제2549335호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보청기** 를 쳐보세요”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종로 5가역 1층 02) 765-9940

자연의 소리... 국제보청기

송년·신년모임  
지금 예약하세요!

지난 30여년, 광주시민 여러분의 소중한 모임을 정성껏 모셔왔습니다.

정겨운 만남은 품격있는 **아리랑하우스**에서

예약문의 (062) 525-2111 계림동 홈플러스 건너편

광주맛집 since 1981 36년을 고객과 함께 지켜온 1등맛집 연속 선정 광주의 대표맛집

광주금수장호텔 GEUMSUJIANG HOTEL